

원희룡 장관, “한-UAE 협력관계 공고화”

- 27일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만나 건설 인프라 협력 논의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(목) 서울에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(Suhail Mohamed Al Mazrouei)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·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애로사항을 지원하였다.
- 이날 면담은 7월 28일(금)에 예정되어있는 「한-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」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되었다.
-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“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”라며, “국토교통부와 에너지인프라부는 3건의 MOU 체결을 통해 스마트인프라·플랜트, 수소도시,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기술 공유 및 인적자원 교류 등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며, '70년대부터 구축해 온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UAE의 주요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를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UAE에서 수주 활동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.
- 이에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장관은 “1월 윤석열 대통령 국민방문 시 양 부처가 중요한 MOU를 체결했다”라고 화답하며, “한국의 물류, 철도 등 교통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, 양국 간 체결한 모빌리티 협력 MOU를 토대로 육상교통, 철도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
- 또한, 내년 5월 중동 철도협력회의에 원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며 걸프 국가의 다양한 철도담당 장관과 교류를 심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였으며, 트램 개발 연장 계획, 고속철 개발 계획 등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.

- 아울러,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은 파트너 이상의 국가로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, 한국 기업이 UAE 내에서 뿐만 아니라 UAE 외에서의 공동진출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.
- 이에 원 장관은 “UAE를 넘어선 협력은 매우 중요한 제안으로 정보 교환과 함께 구체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자”고 화답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 이후 지난 7월 6일(목) 서울에서 5년 만에 「제8차 한-UAE 경제공동위」가 대면으로 개최되는 등 UAE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, 향후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메가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·플랜트 등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,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소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 분야로의 성과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.

2023. 7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